



남원송동중 학생들, 지역 청소년들에 간식꾸러미 전달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0일, 남원송동중학교 학생들이 새해를 맞아 정성껏 준비한 간식꾸러미를 전달받아 지역 청소년 20명에게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길규 송동중 교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의미 있는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과 문제 예방을 위한 다양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관련 사항은 청소년지원센터(063-633-1977)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동충동, 바우네 나주곰탕 남원점과 협약식

남원시 동충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차남, 조태봉)와 바우네 나주곰탕 남원점(대표 김연주)은 13일, 관내 결식 우려 대상자들을 위한 ‘뚝배기 하실래요? 나눔의 곰탕 한 그릇’ 협약식을 가졌다.



‘뚝배기 하실래요? 나눔의 곰탕 한 그릇’ 특화사업은 매월 20명을 선정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로 나주곰탕을 제공하여 따뜻한 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지속적으로 결식 우려 사각지대를 해결해 나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연주 대표는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로 작은 위로와 행복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차남 동충동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나눔과 온정을 나누며 지역사회 내 유대감을 형성하고 더불어 사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지사면 정정순 전 생활개선회장, 이웃돕기 성금

지사면 정정순 前 생활개선회장이 행복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평소 지역사회 복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9일 지사면 행복보장협의체에 현금 50만원을 기탁해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기탁받은 현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가정 및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정순 전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성금을 기부하게 됐다”며 “행복보장협의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길영 지사면장은 “정정순 회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는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될 것이고,면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임실=전충영 기자

전북대 양기진 교수, 금융산업 발전 기여 금융위원장 표창

증권·파생상품 시장 발전 기여... 증권·파생상품 우수논문상 수상
금융법 관련 활발한 학술활동·제도 발전 위한 범국가적 제언 공적 인정받아

전북대학교 양기진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최근 권위 있는 상을 연달아 수상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양 교수는 지난 12월 말 국내 금융산업 발전과 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금융위원회위원장(장관급) 표창을 받은 것을 비롯해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 발전에 기여한 연구 논문으로 한국거래소(KRX)로부터 ‘증권/파생상품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양 교수는 금융법 관련 활발한 학술활동과 금융제도 발전 논의에 범국가적 제언을 해왔고, 특히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자금세탁방지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감독원분담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금융감독 업무 수행에 기여해 왔다.

또한 지난해 한국증권법학회가 발간한 『증권법 연구』에 게재한 ‘고빈도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세조종의 예방 및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한국거래소의 증권/파생상품 우수논문상도 수상했다.

이 연구논문은 알고리즘 거래가 일종 고빈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특성에 따라 시세조종 등 시장의 가격결정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관련 법제 개선 및 실효성 확보 방안을 강조한 것이다.

양 교수는 이 연구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에 관한 현행 규제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발굴해 시세조종 등으로부터 시장질서의 무결성 방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양기진 교수는 “이번 수상은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지만 무엇보다 전북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연구 역량을 보여준 결과라 기쁘다”며 “앞으로도 금융법 분야에서 학문적 발전과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위한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익산시청 축구동호회 ‘축우회’, 사랑의 연탄 나눔

회원 20여명, 팔봉동 10여 세대 방문해 연탄 총 2000장 배달 봉사 진행

익산시청 직원으로 구성된 축구동아리 ‘축우회(회장 이용범)’가 사랑의 연탄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했다.

13일 팔봉동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축우회는 지난 11일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연탄 후원과 배달 봉사에 구슬땀을 흘렸다.

축우회는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 67명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연탄 2,000장을 마련했다. 이날 회원 20여 명은 팔봉동 약 10세대를 방문해 연탄을 직접 배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한 직원은 “땀과 연탄으로 벌떡돼 서로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지만, 평소 축구로 단련된 체력과 팀워크 덕분에 호흡이 척척 맞아 힘든 줄 몰랐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용범 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회원들에게 고맙다”며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나누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기부가 확산해 따뜻한 지역 공동체 문화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동아리 활동이 직원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실천의 장이 되고 있어 뿌듯하다”며 “직원들의 여가 생활 확대와 활기찬 직장 분위기 형성을 위한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청 축우회는 1991년 설립된 익산시 직원 동호회로 회원 수는 67명이다. 매주 2회 친선도모 경기를 진행하며 분기별 친선대회와 연 1회 금강·백제문화권 시군 친선 축구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창해에탄울, 백미 기부·결연 봉사활동 진행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는 13일 (주)창해에탄울(대표이사 이연희)이 기부한 백미를 전주시 관내 희망풍차 결연세대와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에 직접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창해에탄울 임·직원 25명을 비롯한 봉사원, RCY등 60여명이 참여했으며, 쌀소비 촉진 및 농가 소득 보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기부자가 직접 배부 봉사활동에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연희 대표이사는 “임직원 모두가 합심해 직접 취약계층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해 더 뜻깊다.”라며, “쌀을 받아보시고 활짝 웃으시는 어르신들을 보고 매우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창해에탄울은 전주 팔봉동에 위치한 도내 유망 중소기업으로 고품질의 주정(발효에탄울)과 바이오소재를 생산하는 선도 기업이다. 매년 지역사회에 쌀과 연탄나눔 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멸절맛이 온누리상품권을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김제 중앙청과,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중앙청과 이원석 대표가 13일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을 기탁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첫 3년 연속 기부자로 누적 기부금이 1,500만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중앙청과는 지난 1989년에 창립된 도매시장 법인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화와 유통 선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이 대표는 국군 장병 위문품 전달 등 다양한 사회적 공헌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김제 광활농협과의 인연으로 김제시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 대표는 “김제시와 맺은 특별한 인연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하게 되었는데 지역 발전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어 뿌듯한 마음이다.”며 “기부금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백산인삼영농조합법인, 김제시에 후원물품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3일 백산인삼영농조합법인(대표 김태엽)이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200만 원 상당의 홍삼액(15포입)과 수정과 각각 50상자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백산인삼영농조합법인은 백산면에서 4대째 가업으로 인삼 농사를 이어오고 있는 전통 있는 농업 법인으로, 고품질 인삼 제품을 생산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왔다. 김태엽 대표는 2017년부터 매년 꾸준히 홍삼액을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설 명절을 맞아 이웃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이번에도 홍삼액을 기부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